

# 학생 반항하고 학부모는 고소...“교단이 무서워요”

## 추락하는 교권 이대로 괜찮나

〈상〉 광주·전남 학교 실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사례는 다반사이며, 일부 학부모는 지나친 자녀보호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 차례에 걸쳐 광주·전남지역 교권 침해 실태와 원인, 대안을 게재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무너진 교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교육당국의 교권 보호 정책은 교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에 교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치유 활동은 물론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학생·학부모 포함)는 338건이다. 2018년 63

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67건, 2022년 1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교권 침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상해·폭행 30건,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18건, 반복적인 교육활동 부당 간섭 13건 등이다.

## 모욕·명예훼손 등 가장 심각

## 학생·학부모-관리자 순 침해

## 교육청 법률지원단 실효성 의문

같은 기간 전남도교육청에서도 475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2018년 102건, 2019년 107건, 2020년 60건, 2021년 97건, 2022년 109건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2 광주교육종합실태조사’를 보면, 교사들은 ▲학생(64.9%) ▲학부모(59.2%) ▲관리자(20.3%) ▲동료교사(13.9%)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교사가 인식하는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45.9%로 가장 높았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41.2%,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 9.3%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 유형이라고 인식하고 대상은 학급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권 침해 건수 증가와 더불어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인 37.1%로 가장 높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 강화 34.0%,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관계 증진 방안 마련 8.3%, 교권 보호 지원 7.6%, 법률적 비용 지원 5.9%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교원 자격증이 취소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 교사들에겐 부담이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면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 결론이 날 때까지 1~2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는 지원단에 소속된 변호사로부터 일대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지시불이행 등 교육을 따르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교 안에서 물리적, 신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교사들이 실질적인 한계를 느낀다.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물절약 캠페인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1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에서 열린 가뭄 극복을 위한 물절약 캠페인에서 복구 공직자와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시민들에게 양치용 머그컵 등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전남 주요 댐 6월까지 버터”

## 영산강청, 가뭄 대응책 마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암댐 등 전남 지역 주요 댐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저수위에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댐 내 용수가 저수위에 도달할 경우 펌프 시설을 설치해 최대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 가뭄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21일 영산강환경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남 주요 댐의 저수율은 섬진강댐 19.1%, 동북댐 19.0%, 주암댐 21.5%, 평립댐 30.5%, 수어댐 67.3%로 집계됐다.

이들 댐의 저수위 도달 시점은 당초 4~5월 사이로 예측됐으나 지난달 비가 오고 수요·공급 관리 대책이 세워지면서 오는 6월까지 연장됐다. 저수위는 댐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다. 다만 섬진강댐의 경우 봄 가뭄이 이어질 경우 저수위가 예상 시기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다. /우성진 기자

## ‘만삭’ 임신부 119구급차서 아기 출산

## 순천소방서 구급대원 도움 순산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가 119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을 무사히 출산했다.

21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순천시 금곡동 한 주택에서 ‘39주 산모인데 출산이 임박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소속 장효정, 김종섭, 장대연 구급대원은 신고 접수된 지 6분여만에 산모 A씨가 있는 자택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태아 정수리 부분이 8cm 보이며 고 있으며 1분 남짓마다 진통간격이 있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분만을 시작했다.

구급대원들은 의료지도를 받으며 분만을 지속적으로 시도, 신생아를 건강하게 출산했다.

이후 구급대원들은 산모와 아기를 순천미즈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박상진 순천소방서장은 “응급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으로 소중한 아이의 분만을 유도한 구급대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광주·전남 튀르키예·시리아 후원 한 달 새 1,248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 한달여가 경과된 가운데 이재민을 돕기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후원이 1,248건을 넘어섰다.

21일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전남 기준 총 1,248건의 튀르키예·시리아 성금 전달이 이뤄졌다. 이 기간 모인 총 성금은 11억1,416억원에 달한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사회 단체, 시장 상인회, 노동조합, 복지관 등 385곳의 단체에서 1억3,129억원을 보내왔다.

이날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에서는

500만원 상당의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같은 기간 826곳의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2억 3,187만 원을 후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특별 모금을 진행한다.

지난달 7일부터 지진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대국민 모금 캠페인을 연 대한적십자사도 기업, 병원, 주민자치회,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된 성금은 총 37건에 7억5,1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민찬기 기자

##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신가동 (상가빌딩) ▶ 감정가 13억8천 → 최저가 9억7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28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
광산구 수완동 (토지) 486평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남구 임암동 (상가 5층) ▶ 감정가 3억1천 → 최저가 2억2천
김제시 서암동 (숙박시설) ▶ 감정가 23억 → 최저가 8억
시외 나주 빛가람동(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24억

010-2614-9801

## 전원주택 (1채) → 7,000만 신축 원룸 (상가) 매매

(토지 분양 중) 장성댐5분, 광주 20분, (6m도로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 ▶ 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 ▶ 임대걱정없음

▶ 월수익 → 750만 (년9,000만)

시세 19억  
급매 14억5천 (용7억)

010-6670-9800